

일상 속의 파시즘 폭로하는 통렬한 풍자정신

어느 철학자가 본 쿤터 그라스의 삶과 문학

홍윤기 | 동국대 철학과 교수

스웨덴 한림원은 9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독일의 쿤터 그라스를 선정, 발표했다. 2차대전 중 독일이 저지른 야만행위와, 이를 쉽게 잊어버리는 집단적 망각증에 끊임없이 도전해온 쿤터 그라스의 노벨상 수상은, 새로운 세기에 인류가 경계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새삼 흥미하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모습으로 전세계에 전달됐다.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서 볼 때, 오리걸음과 히틀러 만세 경례, 독일군 철모로 상징되는 '히틀러 독일'과 경제적 번영과 풍요를 구가하는 '민주주의 복지 국가 독일'은 겨우 10여년의 시간적 거리만 있을 뿐 똑같은 독일의 과거와 현재로서 연속돼 있다. 그럼에도 특히 비유럽권 사람들에게는 이 두 모습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대체로 그런 것을 안다는 데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투는 명백하게 종결됐고 히틀러는 역사가 된 지 오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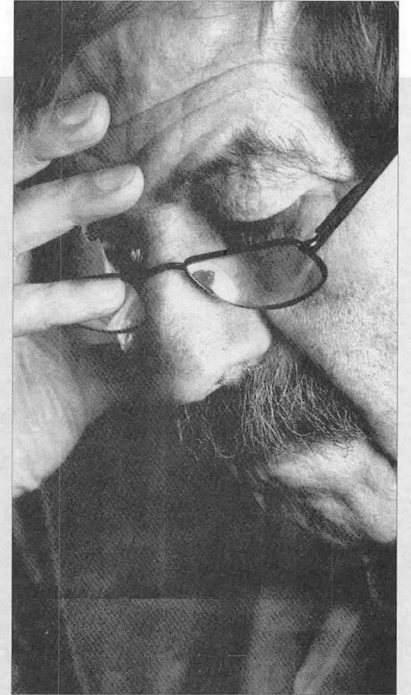
독일 본토 내에서 치뤄진 전투상황은 1942년 중반 영국 공군의 베를린 공습이 있고 나서 겨우 2년 동안 계속됐을 뿐이었다. 그때까지 독일의 전쟁은 비록 국민총동원 체제 아래서 거의 전국민이 전투와 그 지원에 동원되긴 했지만 주로 군 병력들의 원초적 전투행위에 국한됐다. 그러나 1945년 5월 소련군의 베를린 입성 뒤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 군부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난 뒤 그라스에게, 그리고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독일 인민들에게, 본격적인 전쟁, 전쟁다운 전쟁이 시작됐다. 다시 말해 이때 비로소 독일 인민은 마치 자기네들 군대가 외국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외국 점령군과 현지 국민의 직접

적인 공격과 추적의 대상이 됐다.

패전 후 독일인들의 내면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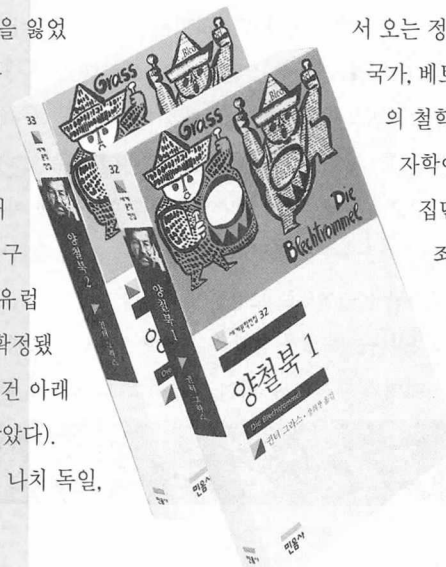
제1전선: 주로 과거 프로이센 제국의 관할 아래 있던 이른바 동유럽 소재 독일 영토, 즉 리투아니아·코니히스베르크·포메라니아·보헤미아, 그리고 그라스의 고향이자 2차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 단치히 지역에 거주하던 독일 거류민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그리고 전투상황이 종결된 가운데 새삼스럽게 이뤄진 근 1천만 이 넘는 대규모 피난 행렬이 195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이 와중에서 전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6백만의 독일인이 나치 독일의 원죄를 대신 속죄라도 하듯이 기아와 질병과 추위 속에서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고향을 잃었다. 이 지역들은 독일의 재통일이 이뤄지는 1990년까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독일이라도 요구할 수 없는 각 동유럽 국가들의 영토로 확정됐다(그리고 그런 조건 아래서 재통일을 인정받았다).

엄혹한 제2전선: 나치 독일,



쿤터 그라스

자신들이 충성을 바친 그 조국이 외국을 상대로 한 주권국가로서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권국가의 겉모습 아래서 국가적으로 조직되고 국민적으로 동원된 체계적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모멸적인 당혹감. 자기들의 조국이 정상적인 현대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패륜국가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정체성의 전면상실. 괴테의 국가, 베토벤을 배출한 인민, 칸트와 헤겔의 철학적 전통, 그리고 니체의 통렬한 자학이라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도 이 집단범죄를 막거나 하다못해 그 범죄의 와중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인지할 능력조차 발휘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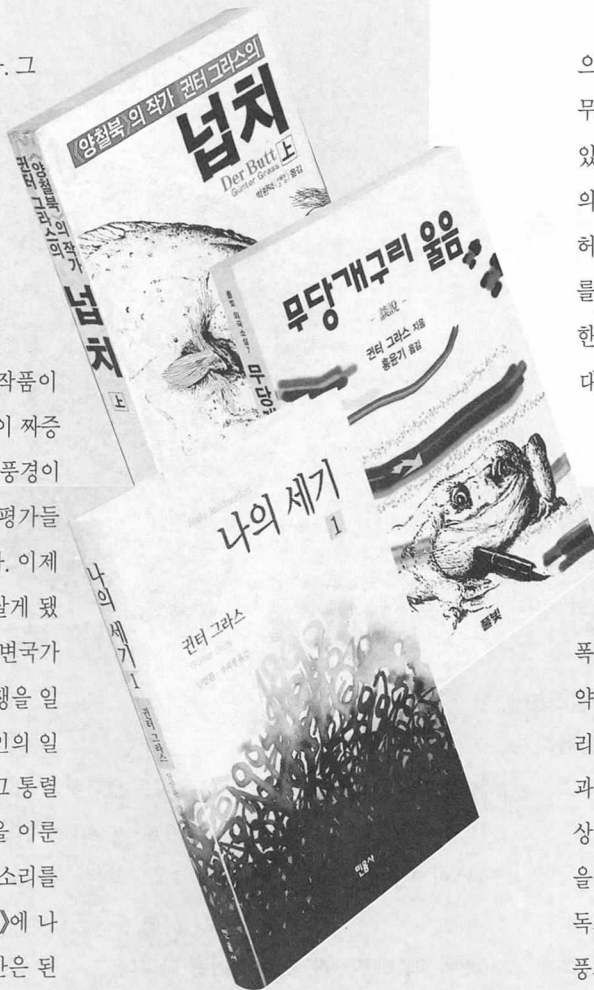
양철북(전2권)/장희창 옮김
민음사/A5변형/504면 내외/각 8000원

었다는 정신적 허약함에 대한 공허스러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져진 물음: 우리는 과연 현실다운 현실을 살았던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점에 기대야 할 것인가?

독일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작가

《양철북》(1959) 이래 쿤터 그라스의 새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왜 적지 않은 독일 사람들이 짜증스러워 하는가? 글마다 나타나는 단치히 풍경이 이 작가의 소재적 빈곤을 드러낸다는 비평가들의 상투적 지적은 사실 피상적인 것이다. 이제 과거사에 눈감아도 될 만큼 독일이 잘 살게 됐고, 또 전쟁도발로 피해를 입힌 유럽의 주변국자들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는 데도 전쟁을 일으켰던 그 파쇼적 야비함이 아직도 독일인의 일상 속에서 즐기차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그 통렬한 자기비판이 만국의 축복 아래 재통일을 이룬 지금까지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목소리를 더욱 키워가고 있다는 것. 그래도 《양철북》에 나오는 난쟁이 오스키는 장애인이라도 인간은 된다. 점잖고 품위 있고자 하는 독일시민의 기풍이 고양이와 개, 녀치, 쥐, 달팽이, 무당개구리로 이어지는 그라스의 동물원에만 들어가면 여지없이 그 피상성과 이중성을 폭로당하고 만다.

그러면서도 그라스와 동시대의 독일인들은 이 즐기찬 이야기꾼의 답설에 귀를 틀어막지 못한다. 한국 독서대중의 안목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하지만, 그라스의 답설이나 소설에는 전쟁상황을 비집고 일상적인 독일인들이 충족시키고자 바랐던 그 교묘한 욕구들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묘출돼 있다. 여기에서 그라스의 동물 주인공들은 동물답게 침묵하고 있는데, 사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인간 주인공들의 인간다운 면모들이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하나같이 야수가 아니다. 그라스가 등장시키는 동물들은 인간의 생활 한구석에서 인간의 삶을 지켜보면서 인간에 의해 도외시된 그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자신의 몸에 체화시키는 것으로 등장한다. 동물을 동원한 우화의 기법에서 흔히 의도하는 바와는 반대로, 그라스는 동물을 통해 인간의 동물성을 풍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물답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물의 인간성을 동물답지도 못한 인간의 한



넙치(전2권)/박환덕 옮김/학원사/A5신/362면 내외/절판
무당개구리울음/홍윤기 옮김/꽃빛/A5신/312면/5800원
나의 세기1/안삼환·장희창 옮김/A5신/284면/8000원

심한 작태와 빈틈없이 결부시킨다.

《고양이와 쥐》에 나오는 평범한 독일인 요아힘 말케는 목에 붙은 이상스럽게 커다란 목젖 때문에 어디 가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병사가 돼 기사훈장을 받게 되고, 대중 앞에서 멋진 연설을 해 자기 목젖에 쏘리는 조롱어린 시선을 존경어린 시선으로 바꿔보려는 황당한 소망을 품게 된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소시민이 결코 품지 않았을 이 소망에는 참으로 엉뚱한 방해요인이 따라다닌다. 사람만 그의 목젖을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설새없이 꿈틀거리며 오르내리는 그의 목젖을 쥐로 착각한 고양이가 언제나 그 목젖을 노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말케는 단지 한 마리 생쥐로 보일 뿐이다. 기사훈장이 감긴 멋진 제복의 칼라도 인간이라면 몰라도 이 고양이의 날카로운 시선만은 피하지 못한다. 이 검은색 고양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할 권리는 전적

으로 독자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공훈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인간의 허약함이 있으며, 고양이의 시선을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허망한 욕구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라도 그 허약함을 가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허망한 욕구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 목젖이 있는 한 이런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깨달은 이 위대한 병사 말케는 기사훈장을 내동댕이치고 고양이의 시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지만, 그때는 이미 전쟁이라는 더 큰 고양이가 그의 기력을 거의 쇠진시켜 버렸음을 그라스는 암시한다.

그라스는 인간이 강한 야수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허약함 때문에 폭력적 범죄에 동조한다는 것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그리고 그 허약함을 자각하는 과정을 따라 온갖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마치 일상의 흐름처럼 고즈넉히 펼쳐지면서 그런 모습을 외면하려는 바로 그 정신적 허약함의 일부로 독자의 심리에 젖어든다. 그라스 소설에 흐르는 풍자 섹션이 일종의 비애와 자기연민이 항상 어리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성찰의 뼈저림이 웃음 자락에 스며있기 때문이다.

독일 교양소설의 위대한 전통 이어

그렇다면 그라스는 비판적이기만한가? 그라스 소설이 언제나 참혹스러움이 암시된 비극으로 끝나는 것에 질린 독일의 중진 비평가들이 그라스에게 주인공 살해의 고결병을 언제 고칠 것인가를 질책하는 것은 분명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독일적인 현실에 대해 직접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필자로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용되리라고 믿는다. 어떤 과정이 완결된 뒤에 비로소 그 과정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독일 교양소설이 남긴 위대한 자산 중에 하나다. 죽음은, 그것도 성실하게 추적된 삶의 과정이 선행된 죽음은, 그 삶의 종말이 아니라 완결일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삶을 완결시키는 죽음의 여러 모습 앞에서 각자 자기 힘으로 자신의 종말을 선택할 용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이왕이면 그 종말도 의미 있을 그런 삶의 과정을 구상하게 될 것이 아닐까? ●